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기쁘게 차드 선교에 동역해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10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로 차드를 섬긴지 12년 차, 저희 부부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거주하며 하는 선교사역은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저희들의 현재 위치:

저는 현재 한국에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매 3개월마다 CT 스캔을 통한 추적 검사를 하며 건강을 확인하고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 중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얼굴의 기저 피부암 제거 수술을 이번주 화요일(30)에 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도 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내 임선교사는 딸이 유방암 치료 중이기에, 미국에서 딸을 돌보면서 허약해진 본인의 건강도 점검하며 보강 중에 있습니다.

2. 이후의 차드 사역: 그동안 차드에 세운 교회와 초등학교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사역은 현지 교단에게 인계하였으며, 자립과 훈련을 위해 시작된 만바 공동체 사역과 다른 사역들은, 후임 선교사가 바톤을 이어서 주변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의 센터로써의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는 시니어 전문가 미션 팀을 이끌며, 일년에 1-2회 단기로 차드를 방문하여 사역을 돕는 간접 사역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만바 공동체내의 농업학교를 통한 젊은 지도자들 양성과 두 곳 마을(마디아와 만바)에 세워진 초등학교를 발전시키고 아이들을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세워 가는 중입니다.

3. 재정 후원: 그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동역하여 주신 교회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동역 없이는 차드 선교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물질 후원 동역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크리스천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자립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일부는 저희 부부의 건강 회복과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신 교회와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는 말처럼, 여전히 단기팀들이 들어가며 서로 연합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전서 3:6-11.

주님이 하셨습니다.

권홍량, 임헌진 드림